“ 십자가는 말한다 ”

■ **이종윤 원로목사**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화형장에서 쓰는 거친 나무 기둥이라기보다는 더 깊은 뜻이 있다. 십자가는 본래 고대 중동지방과 그 후 로마에서 흉악범의 사형집행틀이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는 자신의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바닥이 찢어져 피를 흘리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혈관이 팽창하고 근육이 뒤틀리며 호흡이 곤란해지고 현기증과 조갈증이 나며, 사막의 열풍은 시시각각으로 그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 같은 고통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사형수는 미친듯이 울부짖으며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혹은 발광하며 속히 죽게 해 달라고 애원하기도 한다. 예루살렘 성 밖 살풍경한 적토박이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죗값을 짊어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잔악하고 무서운 형벌을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죽으셨다. 인형도 심지어 카드도 로봇도 전화기도 입력된 말을 하는 세상이지만 예수와 십자가상에서 뿌린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을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체포하겠다고 병기 들고 찾아왔다. 어둠의 자식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빛의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 어리석게도 이성의 등불과 욕망의 몽둥이와 명예의 횃불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를 찾겠다고 오늘도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누구를 찾느냐는 예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가 누구신지 모를 뿐 아니라 그를 찾지도 만나지도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완전하고 충분하게 보여주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십자가는 아들이 아버지께 절대복종한 징표요 따라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며 동시에 용서하시는 사랑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말을 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말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권능이 임한다고 말을 한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을 세상에서 실현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지혜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지혜요 권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사랑,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오늘도 십자가는 말한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은 구원의 잔과 진노의 잔을 앞에 놓고 자신은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의 대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절규 대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죄와 고난과 사망과 악마는 정복되었다고 말을 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무엇을 이루셨나? 십자가는 말을 한다. 우리의 지옥 고난이 끝이 났다. 아버지 하나님이 위탁하신 속죄 사업을 완성시키셨다. 성경 예언을 성취했고 사탄의 나라가 끝이 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 할 수 없다. 죄와 사망 그리고 악마를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 십자가 밑에서 승리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살아야 한다. 아무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패, 수치, 좌절, 고통, 죄, 허물, 낙심, 공포에 빠져 의지할 곳도 버틸 힘도 없는 이가 우리 중에 있는가? 이런 이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십자가가 하는 말을!

-한국장로신문 [제 1360호] 2013년 3월 30일 발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서 3부 예배 형태로 진행하되, 실시간 영상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새로 강화된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을 존중하여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부와 2부 예배를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드리오니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시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접속방법은 아래 기재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서울교회 공식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교회학교는 이전처럼 부서교역자의 동영상 설교 등 SNS 예배자료를 활용한 가정예배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주일예배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iseoulchurch.or.kr/upload/20200719_sermon.jpg

교회 도착 시 교회 앞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신 주차가 어려우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운전하시어 카이로스 빌딩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사무국에서 주차권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현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인도),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레쉬),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사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강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길 7
7, Samsu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2) ”

■ **고전 3:1-5**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신령한 자란 밥을 먹는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이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1. 밥 혹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는 자

사도는 신령한 자의 특색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5)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무엇을 판단하는가 보다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판단은 내게 없는 다른 사람들의 재주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 혹은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름을 또는 선하고 악함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도 나름 자신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들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분별의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도는 젖을 먹지 말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2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어른처럼 성장했는데 여전히 젖만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젖만 좋아하는 것은 한편으로 편리주의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성을 따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교훈과 가르침에 적극 순종하고, 심지어 의인이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는 인내와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2. 시기와 분쟁을 피하고 화평케 하는 자

신령한 자는 시기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지는 않는 자를 말합니다. 사실 신령한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날마다 전쟁터에서 사는 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신령한 자는 다툼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의 조성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시기와 갈등과 다툼과 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인간이기에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들과 싸울 방식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 6:12).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사람은 죄의 습관을 좇아 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그에게는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입니다. 물론 실패로 인하여 깊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정은 끝없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을 인하여 다시금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3.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본문 3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정해진 원칙이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복하는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영적인 맛을 더욱 맛보려는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에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매사에 충실하고 신실합니다. 단순히 열매 맺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맺는 말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영에 속한 장성한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창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Ⅰ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Ⅱ	오전11시20분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Ⅲ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68: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15(시 27)···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 맡 은 이
찬 송 Hymn ·····68(3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3:9-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죄 아래 놓인 인간!"···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 ·····268(202)···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전재홍 목사

묵 도 ····· 다 함 께
성 시 ····· 시 101:1 ····· 인 도 자
찬 송 ····· 88(88)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 경 ····· 히 13:7-19 ····· 인 도 자
설 교 ···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3)" ··· 인터넷 영상
찬 송 ····· 325(359) ····· 다 함 께
주기도 ·····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 서명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롬 3:9)		
수요Ⅰ부								
수요Ⅱ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279명	212명	1,491명	1,861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7/1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12일	헌 금	29,811,100	
	교회학교운영비		1,775,000
	출 판 비		210,000
	복리후생비		196,650
	통 신 비		188,080
	차량유지비		557,200
	소모품비		1,233,290
	세금과공과		6,513,820
	환경유지비		37,500
	수선유지비		896,410
	식당운영비		340,780
	합 계	29,811,100	11,948,73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시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